

2023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I. 2023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23년 4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작성

수석연구원 김윤지 (02-6252-3607)





<요 약>

I. 2023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3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9.8% 감소, 전기 대비로는 0.8% 증가

- 2023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740억 달러) 대비 9.8% 감소, 전분기(1,558억 달러) 대비로는 0.8% 증가한 **1,570억 달러**
- 중국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했으나, 반도체·석유화학 수출 등이 개선되면서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축소
- 품목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등이, 지역별로는 미국, EU 등이 증가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3p 하락한 89

- 전기 대비 생산원가가 상승하면서 수출채산성 평가가 하락하고, 수출물량 평가도 하락해 전반적인 수출업황 평가 하락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1				'22				'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평가지수	104	99	94	101	93	94	90	91	88	92	89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7	96	95	100	90	94	92	91	88	92	89
수출단가 평가지수	111	116	118	116	125	119	115	105	105	100	103
생산원가 평가지수	127	133	132	133	144	135	129	117	114	108	113
수출물량 평가지수	108	103	98	107	97	97	89	91	83	93	88
자금사정 평가지수	101	97	96	99	93	94	93	96	94	97	95

- 수출채산성 평가는 석유, 플랜트/해외건설, 선박 등은 하락,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등은 상승
- 수출물량 평가는 플랜트/해외건설, 자동차, 석유, 선박, 전기전자 등 대부분 산업에서 하락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금속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	플랜트/해건	신재생에너지	선박	문화콘텐츠	해운	대기업	중소기업
'23.2Q	98	97	88	79	98	91	109	86	100	86	87	101	91
'23.3Q	95	89	90	89	88	76	98	86	88	105	97	95	89



II. 2023년 4분기 수출 전망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8p 하락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1.4p 상승

- '23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2.7으로 전년동기 대비 4.8p 하락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1.4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상승세를 지속하고 상승폭도 늘려가고 있으며, 전년동기 대비로도 감소폭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액은 증가 전환 가능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선행지수	122.9	124.8	127.7	127.5	122.5	120.7	121.4	122.7
전년동기대비 증감(p)	16.6	14.5	10.7	5.8	△0.4	△4.1	△6.4	△4.8
전기대비 증감(p)	1.2	2.0	2.9	△0.3	△5.0	△1.8	0.6	1.4

미국 경기 호조 지속,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수출물가 상승 등 수출 경기 회복 신호 증가

- **수출대상국 경기** : 독일·중국 등 제조업 중심국가의 경기 둔화는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 등은 호조세가 지속돼 전체 수출대상국 경기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은 확대 추세
 -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2.2('22.4Q)→2.1('23.1Q)→3.4(2Q)→**4.5(3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분기 대비 3.2p 상승한 47.8을 기록, 기준선(50)을 하회하고 있으나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세 지속
 -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48.8('22.3Q)→47.2(4Q)→44.60('23.1Q)→44.63(2Q)→**47.8(3Q)**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역대 최고수준이었던 전년 3분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8.0%, 전기 대비로는 6.4% 하락
- **가격 경쟁력** : 7월 환율 안정 영향으로 3분기 환율은 전 분기(1,315원)보다 **0.3% 하락**한 달러당 **1,311원**이었지만, **8월 이후 환율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은 유지**
- 중동 분쟁 발발 영향으로 2023년말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 분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금리 인하는 2024년 중 시작될 전망이라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338('22.3Q)→1,359(4Q)→1,276('23.1Q)→1,315(2Q)→**1,311(3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320('23.4)→ 1,328(5)→ 1,297(6)→ **1,286(7)→ 1,319(8)→ 1,330(9)**



- **수출물가** : 유가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반도체 단가 하락세도 완화된 데 따라 수출물가는 상승할 전망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09.4('22.3Q)→104.0(4Q)→102.8('23.1Q)→99.6(2Q)→**100.6(3Q)**
- **D램**은 주요 업체의 감산 효과 영향으로 일부 제품은 4분기부터 가격 반등이 시작되겠으며, 2024년에는 반도체 전제품에 걸쳐 가격 상승이 이어질 전망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평균판매가격, Omdia) : 1.82('23.1Q)→1.55(2Q)→1.47(3Q)→**1.44(4Q)**
- **유가**는 중동 분쟁으로 일시적 급등 가능성은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 동절기 비수기 돌입 등 수요 둔화로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배럴당 80달러 중반대를 유지할 전망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3.4('23.4)→75.0(5)→75.0(6)→**80.5(7)→86.5(8)→93.3(9)→89.7(10.20)**
- **주요 산업** : 반도체는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업황이 개선되고, 자동차·일반기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 4분기에는 수출 회복세가 보다 강화될 전망
- **반도체**는 감산으로 인한 D램 가격 상승 및 HBM(고대역폭 메모리),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로 전환될 전망

2023년 4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 전망

-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수출물가가 개선됨에 따라 **2023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한 1,650억 달러 내외** 수준 전망
- 수출 감소세가 2022년 4분기(1,591억 달러)부터 시작된 영향으로 **기저효과**까지 반영돼 수출 증가세 전환 가능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1,740('22.3Q)→ **1,591(4Q)**→ 1,513('23.1Q)→ 1,558(2Q)→ 1,570(3Q)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5.8('22.3Q)→ **△10.0(4Q)**→ △12.7('23.1Q)→ △12.0(2Q)→ △9.8(3Q)
- 다만, 중국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중동 분쟁 지속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반도체 시장 개선이 지연될 경우 수출 증가폭은 축소 가능
- **2023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 내외** 전망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재료 가격 상승'(39.8%), '원화환율 불안정'(39.8%) 응답 최대

-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35.6%→39.8%), 환율 변동성 확대에 의한 '**원화환율 불안정**'(36.4%→39.8%) 응답이 각각 전기 대비 **4.2%p, 3.4%p** 상승하며 최대 비중 차지
-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32.4%→32.47%) 응답률은 전기와 비슷한 수준,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30.4%→27.1%),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17.6%→12.5%)는 전기 대비 응답률 감소



I. 2023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3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9.8% 감소, 전기 대비로는 0.8% 증가

- 2023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740억 달러) 대비 9.8% 감소, 전분기(1,558억 달러) 대비로는 0.8% 증가한 **1,570억 달러**
- 중국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했으나, **반도체·석유화학 수출 등이 개선되면서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축소**
- 3분기 중 월별 수출 증감률은 7월(△16.2%)→8월(△8.3%)→9월(△4.4%)로 감소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수출액도 7월(505억 달러)→8월(519억 달러)→9월(547억 달러)로 증가 추세
- 품목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등이, 지역별로는 **미국, EU** 등이 증가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액	1,464	1,567	1,645	1,767	1,734	1,771	1,740	1,590	1,513	1,558	1,570
증감률(%)	12.5	42.0	26.5	24.5	18.4	13.0	5.8	△10.0	△12.7	△12.0	△9.8
수출물가지수	99.8	107.0	110.4	110.6	112.6	117.1	109.4	104.0	102.8	99.6	100.6
증감률(%)	8.7	22.3	22.0	18.1	12.8	9.5	△0.9	△6.0	△8.7	△15.0	△8.0
수입물가지수	107.4	113.6	119.1	123.4	131.5	136.7	128.0	122.2	121.7	115.8	116.4
증감률(%)	7.9	24.8	26.1	26.3	22.4	20.3	7.5	△1.0	△7.4	△15.3	△9.0
수출물량지수	116.4	118.5	119.9	126.6	124.3	121.1	124.8	119.7	118.2	122.6	121.2*
증감률(%)	5.0	19.4	4.9	4.5	6.8	2.2	04.1	△5.4	△5.0	1.2	△2.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주: 수출입물가지수(달러화 기준) 및 수출물량지수는 2015=100

* 3분기 수출물량지수는 7~8월 평균



수급 개선 및 유가 상승으로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 감소폭 축소

- **반도체**(△14.4%)는 공급업체 감산, 고성능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수급이 개선되면서 수출 감소율 축소, 9월 수출액(99억 달러)은 2023년 월 기준 최고 실적 기록
※ D램가격(\$, DDR4_8Gb, 평균판매가격) : 2.80('22.3Q)→2.20(4Q)→1.82('23.1Q)→1.55(2Q)→**1.47(3Q)**
- **석유화학**(△14.4%)은 유가 상승 및 미국, 중동 등 주요국 수출 증가 영향으로 수출 감소폭 축소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96.9('22.3Q)→84.9(4Q)→80.3('23.1Q)→77.8(2Q)→**86.8(3Q)**
- **일반기계**(+6.8%)는 미국, EU, 중동 등지의 인프라 투자사업 확대로 6개월 연속 수출 증가
- **자동차**(+17.1%)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기록
- **선박**(△3.7%)은 21년도 수주 물량의 생산·수출 본격화,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영향으로 수출 호조세를 유지했으나, 전년 7월 수출(25억 달러)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 기록
※ 선박 수주액(조원) : 23.9('18)→ 23.5('19)→ 19.0('20)→ **40.5('21)**→ 46.9('22)
- **이차전지**(△18.1%)는 주요 기업 배터리 재고 조정, 미국 내 공장 증설에 따른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2. 1/4	2/4	3/4	4/4	'23. 1/4	2/4	3/4	7월	8월	9월
반도체	29.0	13.6	△3.9	△25.8	△40.0	△34.8	△ 22.6	△33.6	△20.6	△13.6
석유화학	27.6	6.9	△9.7	△25.1	△22.3	△24.2	△ 14.4	△24.0	△12.1	△6.1
일반기계	11.5	0.3	0.2	△3.1	△2.0	5.6	6.8	3.1	7.7	9.8
자동차	△0.4	6.8	31.2	29.0	43.9	49.0	17.1	15.0	28.7	9.5
석유제품	91.1	90.9	78.3	18.0	△0.5	△34.8	△ 28.6	△39.7	△35.1	△6.8
선박류	△45.3	△6.7	6.3	△22.5	2.0	21.3	△ 3.7	△30.9	35.2	15.4
이차전지	11.6	8.1	25.5	15.1	10.8	2.4	△ 18.1	△16.0	△21.3	△16.3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일반기계 호조로 미국·EU 수출 증가세 유지, 경기 위축으로 중국·아세안 수출 감소 지속

- **중국 수출**(△20.8%)은 경기 위축으로 인한 반도체, 석유화학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출 감소세 지속
- **미국**(+0.7%)은 자동차, 일반기계 수출 호조 지속, 폴더블폰 등 신규 스마트폰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 흐름 유지
- **아세안**(△14.1%)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경기 둔화로 인한 자동차 판매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EU**(+0.1%)는 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림픽 및 도심 재개발에 따른 자재 수요 증가로 철강 수출 등이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세 유지
- **중동**(+0.5%)는 중고차 수출 확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일반기계, 철강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 흐름 유지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2. 1/4	2/4	3/4	4/4	'23 1/4	2/4	3/4	7월	8월	9월
중국	15.5	△1.0	△4.9	△22.9	△29.7	△22.2	△20.8	△24.9	△20.0	△17.6
미국	13.9	22.2	15.2	6.9	3.4	△2.6	0.7	△8.0	2.4	8.5
일본	15.1	8.9	0.0	△14.0	△10.4	△11.3	△5.0	△5.5	△6.9	△2.5
아세안	38.4	26.1	15.4	△12.5	△19.3	△22.0	△14.1	△22.4	△11.3	△8.0
EU(27)	5.9	10.2	7.2	5.0	3.6	7.7	0.1	△8.3	2.7	6.5
중동	24.4	16.2	10.7	1.6	15.5	14.1	0.5	△2.8	7.1	△2.2
CIS	5.2	△43.3	△19.5	△9.5	7.2	94.2	0.6	△0.8	8.1	△4.6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출입물가 전기 대비 상승, 전년동기 대비 하락폭 축소

- 3분기 수출물가(달러화 기준)는 유가 상승 영향으로 원유정제처리제품 단가 등이 상승하면서 전기 대비 1.0% 상승, 전년동기 대비로는 8.0% 하락했으나 하락폭 축소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96.9('22.3Q)→84.9(4Q)→80.3('23.1Q)→77.8(2Q)→**86.8(3Q)**

- 원유정제처리제품 수출단가는 전기 대비 17.8% 상승해 수출물가 하락폭 축소를 견인, 반도체도 업체들의 감산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전년대비 1.7%만 하락

- 수입물가(달러화 기준)도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전기 대비 8.5% 상승한 영향으로 전기 대비 0.5% 상승, 전년동기 대비로는 9.0% 하락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가. 전체 수출업황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3p 하락

-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p, 전기 대비 3p 하락한 89
- 전기 대비 생산원가가 상승하면서 수출채산성 평가가 하락하고, 수출물량 평가도 하락해 전반적인 수출업황 평가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 물가가 상승하면서 수출단가 평가(전기 대비 3p ↑)가 상승했지만, 유가 상승 영향으로 생산원가 평가(전기 대비 5p ↑)가 더 크게 상승해, 종합적인 수출채산성 평가는 전기 대비 3p 하락한 89
- (수출물량 평가지수) 7~8월 수출 물량이 소폭 하락한 영향으로 전기 대비 5p 하락한 88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기 대비 2p 하락한 95 기록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1				'22				'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평가지수	104	99	94	101	93	94	90	91	88	92	89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7	96	95	100	90	94	92	91	88	92	89
수출단가 평가지수	111	116	118	116	125	119	115	105	105	100	103
생산원가 평가지수	127	133	132	133	144	135	129	117	114	108	113
수출물량 평가지수	108	103	98	107	97	97	89	91	83	93	88
자금사정 평가지수	101	97	96	99	93	94	93	96	94	97	95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나. 규모별 · 산업별 · 수출 지역별 수출업황

기업규모별 : 대기업(101→95), 중소기업(91→89) 모두 전기 대비 하락

- 수출업황 및 수출채산성, 수출물량 모두 대기업, 중소기업의 평가가 전기 대비 하락했으며, 수출단가 평가의 경우 중소기업(100→103)보다 대기업(98→108)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남.



산업별 : 자동차(98→88), 기계류(97→89), 섬유(91→76), 해외건설/플랜트(109→98) 등 업황 평가 하락, 석유화학(79→89), 문화콘텐츠(86→105) 등은 상승

- 수출채산성 평가는 섬유(94→78), 플랜트/해외건설(105→93), 선박(98→85) 등은 하락, 신재생에너지(86→100), 문화콘텐츠(82→95) 등은 상승
- 수출물량 평가는 해외건설/플랜트(107→86), 자동차(102→88), 섬유(93→78), 선박(100→83), 전기전자(98→90) 등 대부분 산업에서 하락, 문화콘텐츠(77→100) 등은 상승

수출지역별 : 일본(98→89), 중남미(111→94) 등은 업황 평가 하락, 중국(87→88) 등은 상승

- 수출채산성 평가는 북미(96→90), 일본(94→87), 동남아(90→84), 중남미(104→94) 등은 하락, 중국(87→88)은 2분기 연속 상승, 중동(83→100)도 큰 폭 상승
- 수출물량 평가는 일본(98→88), 북미(96→89) 등은 하락, 중국(82→89) 등은 상승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23. 2/4	3/4	'23. 2/4	3/4	'23. 2/4	3/4
전 체			92	89	92	89	93	88
규모	대 기 업		101	95	97	93	102	98
	중 소 기 업		91	89	92	89	92	86
산업	전 기 전 자		98	95	99	94	98	90
	기 계 류		97	89	96	93	94	89
	철 강 / 비 철 금 속		88	90	86	86	90	88
	석 유 화 학		79	89	88	89	82	84
	자 동 차		98	88	97	89	102	88
	섬 유 류		91	76	94	78	93	78
	플 랜 트 / 해 외 건 설		109	98	105	93	107	86
	신 재 생 에 너 지		86	86	86	100	91	91
	선 박		100	88	98	85	100	83
	문 화 콘 텐 츠		86	105	82	95	77	100
	해 운		87	97	87	84	90	97
수출 지역	북 미		94	91	96	90	96	89
	중 국		87	88	87	90	82	89
	일 본		98	89	94	87	98	88
	유 럽		91	90	91	89	93	88
	동 남 아		89	86	90	84	90	81
	중 남 미		111	94	104	94	107	97
	중 동		83	91	83	100	83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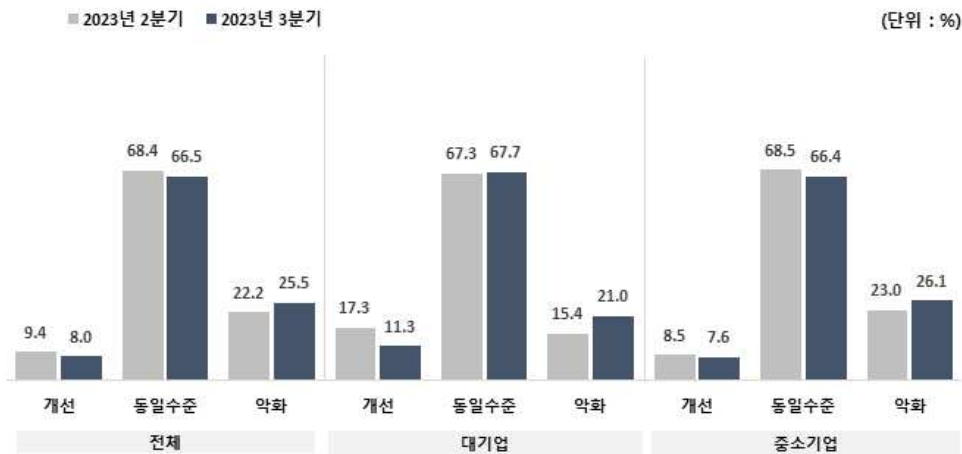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분석

가. 수출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538개사)

수출업황 '개선'은 8.0%, '악화'는 전기보다 증가한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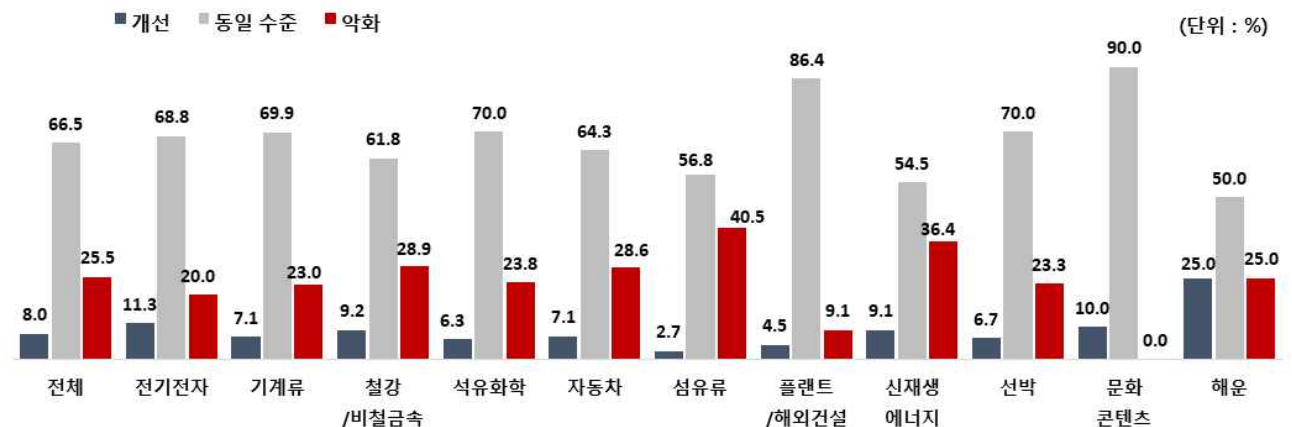
- 전기 대비 '개선' 응답은 0.6%p, '동일 수준' 응답은 0.9%p 감소한 반면 '악화' 응답은 3.3%p 증가
- (규모별) 전기 대비 '개선' 응답은 각각 대기업이 6.0%p, 중소기업은 0.9%p 감소했으며, '악화' 응답은 대기업 5.6%p, 중소기업 3.1%p 증가

3분기 수출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 (산업별) '개선' 응답은 해운(6.7%→25.0%), 석유화학(2.6%→6.3%) 등에서 증가, '악화' 응답은 섬유류(25.7%→40.5%), 자동차(14.0%→28.6%), 전기전자(11.4%→20.0%) 등에서 크게 증가

3분기 수출업황 평가 :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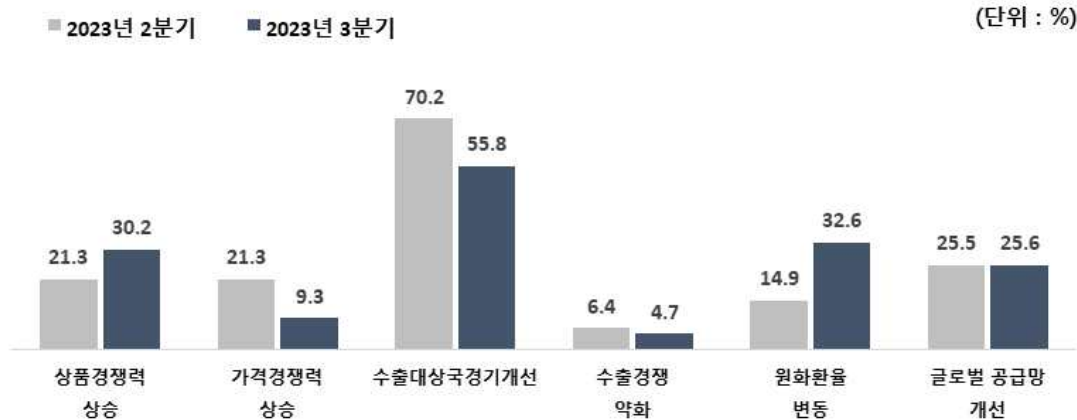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전체 설문 기업 538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43개사, 복수응답)

'수출대상국 경기개선'(55.8%), '원화환율 변동'(32.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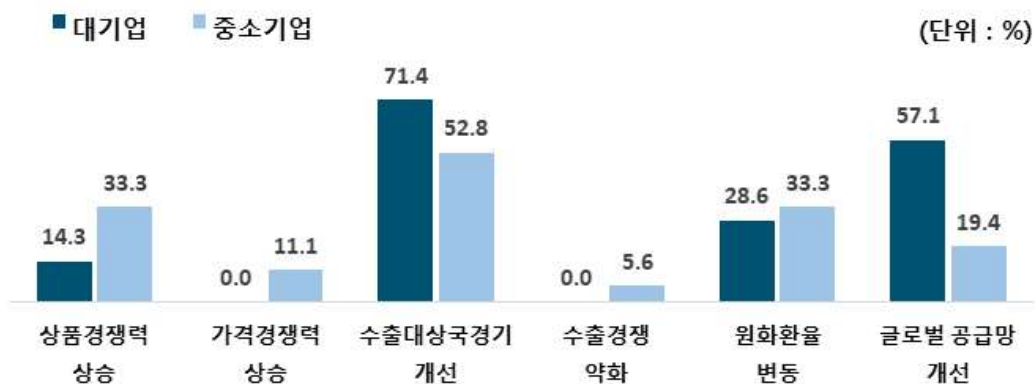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70.2%→55.8%)이 전기대비 감소했으나 최대 비중 차지, 8월 이후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원화환율 변동'(14.9%→32.6%) 응답률이 증가하며 두 번째 비중 차지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은 수출지역이 일본(100%), 북미(71.4%), 동남아(66.7%), 유로존(66.7%) 등인 기업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 '상품 경쟁력 상승'(21.3%→30.2%)은 수출 품목이 신재생에너지(100%), 기계류(50.0%), 선박(50.0%)인 기업에서 증가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전체



- (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을 가장 높게 응답한 가운데, 그 다음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개선'(57.1%), '원화환율 변동'(28.6%) 순으로 응답했고, 중소기업은 '원화환율 변동'(33.3%)과 '상품경쟁력 상승'(33.3%)을 같은 비중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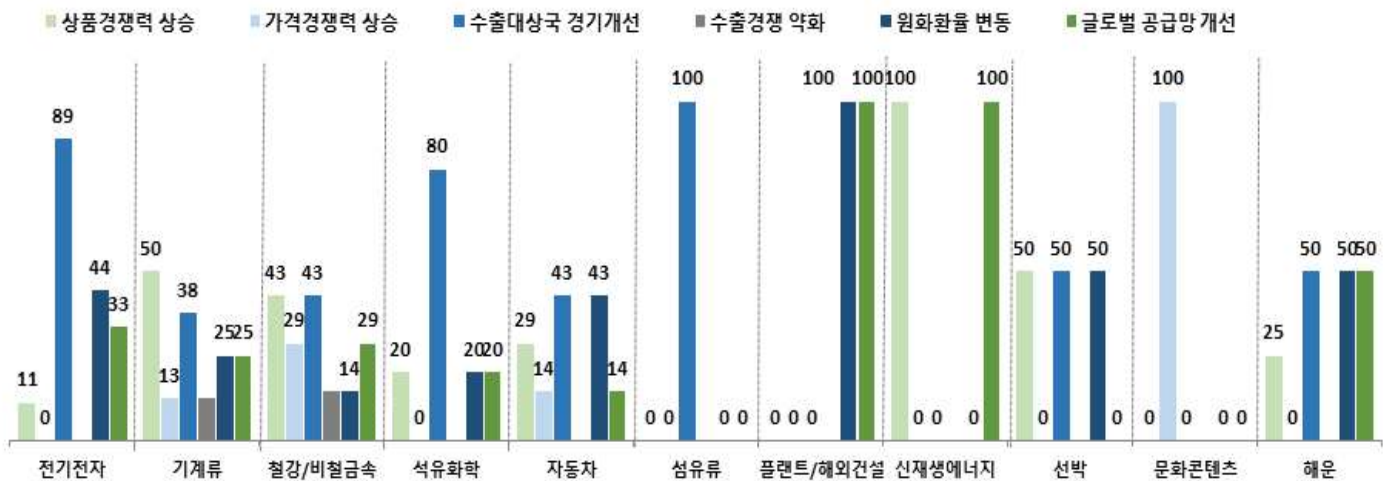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기업 규모별





- (산업별) 섬유류(100%), 전기전자(89%), 석유화학(80%) 등이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업황 개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
- '원화환율 변동'은 플랜트/해외건설(100%), 선박(50%), 해운(50%), 전기전자(44%), 자동차(43%) 등에서 높게 응답
- '글로벌 공급망 개선'은 플랜트/해외건설(100%), 신재생에너지(100%) 등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 '상품경쟁력 상승'은 신재생에너지(100%), 선박(50%), 기계류(50%) 등에서, '가격경쟁력 상승'은 문화콘텐츠(100%), 철강/비철금속(29%) 등에서 높게 응답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산업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원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	가격경쟁력 상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수출경쟁 화	원화환 율변동	글로벌 공급망 개선
전 체		30.2	9.3	55.8	4.7	32.6	25.6
규모	대 기 업	14.3	0.0	71.4	0.0	28.6	57.1
	중 소 기 업	33.3	11.1	52.8	5.6	33.3	19.4
산업	전 기 전 자	11.1	0.0	88.9	0.0	44.4	33.3
	기 계 류	50.0	12.5	37.5	12.5	25.0	25.0
	철 강 / 비 철	42.9	28.6	42.9	14.3	14.3	28.6
	석 유 화 학	20.0	0.0	80.0	0.0	20.0	20.0
	자 동 차	28.6	14.3	42.9	0.0	42.9	14.3
	섬 유 류	0.0	0.0	100.0	0.0	0.0	0.0
	플랜트/해건	0.0	0.0	0.0	0.0	100.0	100.0
	신재생에너지	100.0	0.0	0.0	0.0	0.0	100.0
	선 박	50.0	0.0	50.0	0.0	50.0	0.0
	해 운	0.0	100.0	0.0	0.0	0.0	0.0
수출 지역	북 미	25.0	0.0	50.0	0.0	50.0	50.0
	중 국	14.3	0.0	71.4	7.1	42.9	35.7
	일 본	16.7	16.7	33.3	0.0	33.3	16.7
	유 로 존	50.0	0.0	100.0	0.0	50.0	0.0
	동 남 아	33.3	16.7	66.7	16.7	16.7	33.3
	중 남 미	33.3	0.0	66.7	0.0	0.0	33.3
	중 동	33.3	33.3	33.3	0.0	66.7	0.0

주 : 전체 설문 538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43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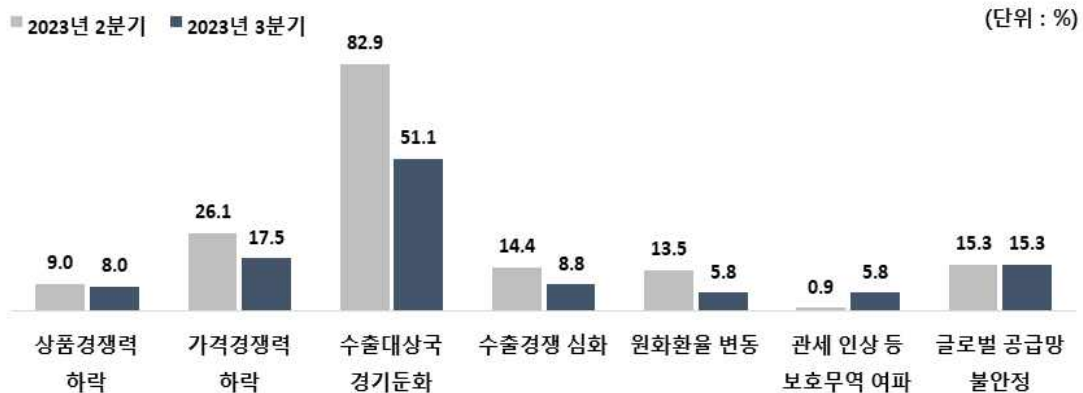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전체 설문 538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37개사, 복수응답)

'수출대상국 경기둔화'(51.1%), '가격 경쟁력 하락'(17.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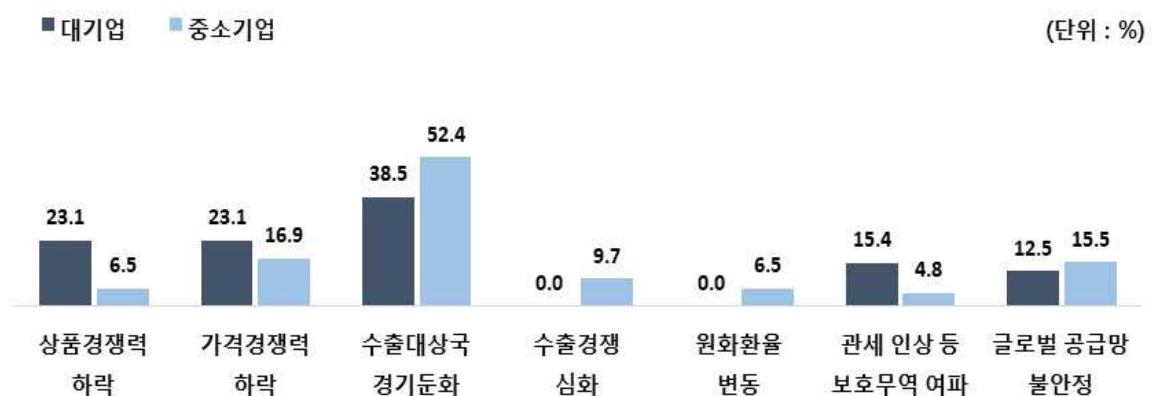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82.9%→51.1%)가 전기에 비해 **31.8%p** 하락했지만 여전히 수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경쟁력 하락'(26.1%→17.5%)도 전기보다 **8.6%p** 하락했지만 두 번째로 많이 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중동**(100%→100%), **일본**(90.9%→75.0%), **동남아**(73.9%→72.4%), **중국**(84.6%→72.0%)인 기업에서 많이 응답했으나, **일본, 중국**의 경우 전기에 비해 응답 비중 감소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전체



- (규모별) 대기업(38.5%)과 중소기업(52.4%) 모두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은 두 번째로 '상품경쟁력 하락'(23.1%)과 '가격경쟁력 하락'(23.1%)을, 중소기업에서는 '가격경쟁력 하락'(16.9%)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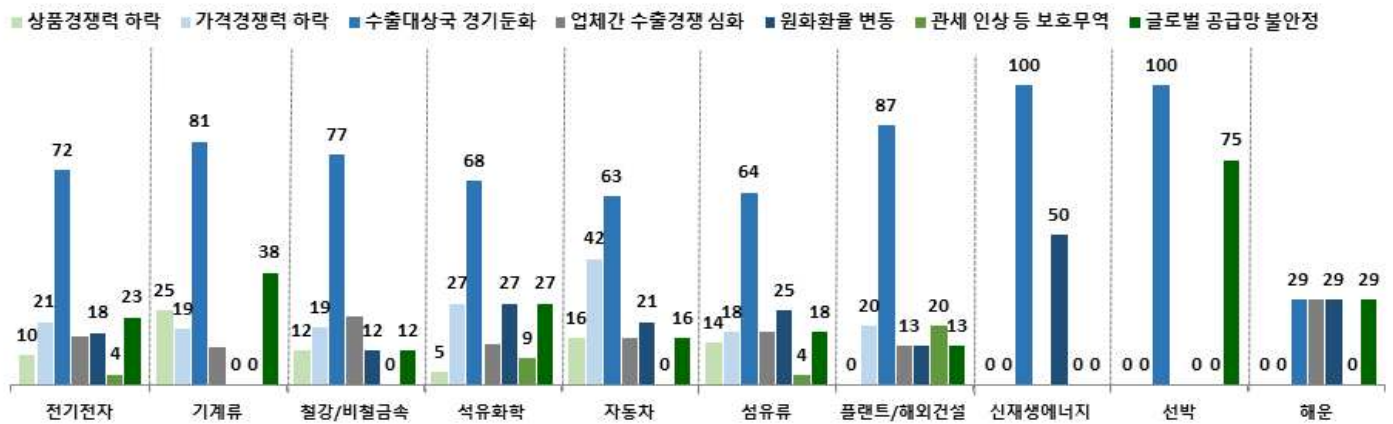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기업규모별





- (산업별)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신재생에너지(100%), 선박(100%), 플랜트/해외건설(87%), 기계류(81%), 철강/비철금속(77%), 전기전자(72%) 산업에서 많이 응답
- '가격 경쟁력 하락'은 자동차(42%), 석유화학(27%), 전기전자(21%) 등에서 많이 응답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선박(75%), 기계류(38%), 해운(29%) 등에서 높게 응답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산업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원인

(단위 : %)

구분		상 경 하	품 쟁 력 하	가 경 하	격 쟁 력 하	수 대 상 경 기 둔 화	수 경 심	출 쟁 화	원 환 변	화 율 동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	글로벌 공급망 안정
전 체		10.2	21.2	71.5	16.1	17.5	3.6	22.6				
규 모	대 기 업	23.1	30.8	76.9	7.7	23.1	0.0	23.1				
	중 소 기 업	8.9	20.2	71.0	16.9	16.9	4.0	22.6				
산 업	전 기 전 자	25.0	18.8	81.3	12.5	0.0	0.0	37.5				
	기 계 류	11.5	19.2	76.9	23.1	11.5	0.0	11.5				
	철 강 / 비 철	4.5	27.3	68.2	13.6	27.3	9.1	27.3				
	석 유 화 학	15.8	42.1	63.2	15.8	21.1	0.0	15.8				
	자 동 차	14.3	17.9	64.3	17.9	25.0	3.6	17.9				
	섬 유 류	0.0	20.0	86.7	13.3	13.3	20.0	13.3				
	플랜트/해외건설	0.0	0.0	100.0	0.0	50.0	0.0	0.0				
	신재생에너지	0.0	0.0	100.0	0.0	0.0	0.0	75.0				
	선 박	0.0	0.0	28.6	28.6	28.6	0.0	28.6				
	해 운	0.0	0.0	75.0	25.0	0.0	0.0	25.0				
수출 지역	북 미	0.0	19.4	69.4	22.2	22.2	2.8	25.0				
	중 국	20.0	28.0	72.0	16.0	12.0	4.0	24.0				
	일 본	16.7	8.3	75.0	8.3	16.7	8.3	33.3				
	유 로 존	15.0	20.0	65.0	30.0	15.0	10.0	5.0				
	동 남 아	6.9	20.7	72.4	6.9	17.2	0.0	24.1				
	중 남 미	20.0	60.0	60.0	0.0	40.0	0.0	0.0				
	중 동	25.0	25.0	100.0	25.0	0.0	0.0	25.0				

주 : 전체 설문 538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37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II. 2023년 4분기 수출 전망

1. 수출선행지수 추이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8p 하락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1.4p 상승

- '23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2.7으로 전년동기 대비 4.8p 하락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1.4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상승세를 지속하고 상승 폭도 넓어지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감소폭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액은 증가 전환 가능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 대상국 경기,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기계 수주액 등도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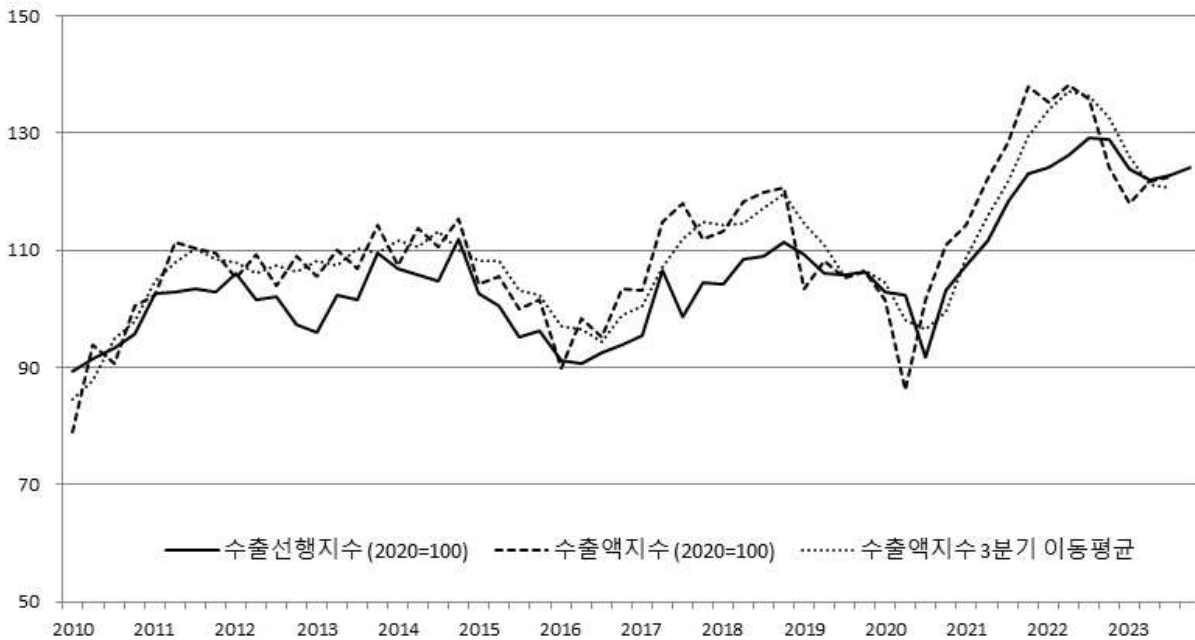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선행지수	122.9	124.8	127.7	127.5	122.5	120.7	121.4	122.7
전년동기대비 증감(p)	16.6	14.5	10.7	5.8	△0.4	△4.1	△6.4	△4.8
전기대비 증감(p)	1.2	2.0	2.9	△0.3	△5.0	△1.8	0.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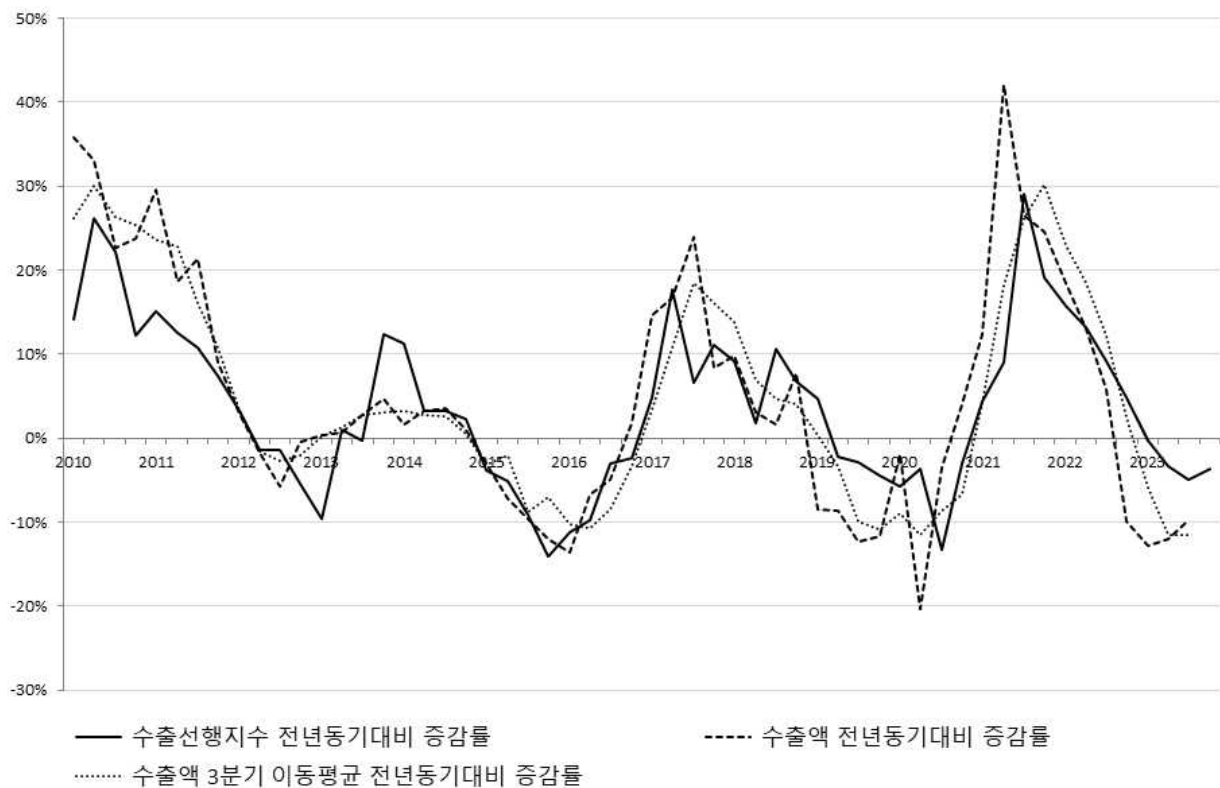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지수 추이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미국 경기 호조 지속,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수출물가 상승 등 수출 경기 회복 신호 증가

- 수출대상국 경기 : 독일·중국 등 제조업 중심 국가의 경기 둔화는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 등은 호조세가 지속돼 전체 수출대상국 경기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은 확대 추세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2.2('22.4Q)→2.1('23.1Q)→3.4(2Q)→**4.5(3Q)**

- WTO 상품무역지수 : 수출 신규주문, 전자부품 수출 등 위축으로 기준선(100)을 하회하는 99.1을 기록했으나, 자동차 수출 확대 영향으로 2분기(95.6)에 이어 상승세 지속, 무역 확대 시사

※ **Goods Trade Barometer***(WTO) : 100.0('22.3Q)→96.2(4Q)→92.2('23.1Q)→95.6(2Q)→**99.1(3Q)**

* 2022년 6월=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무역 확장세, 하회하면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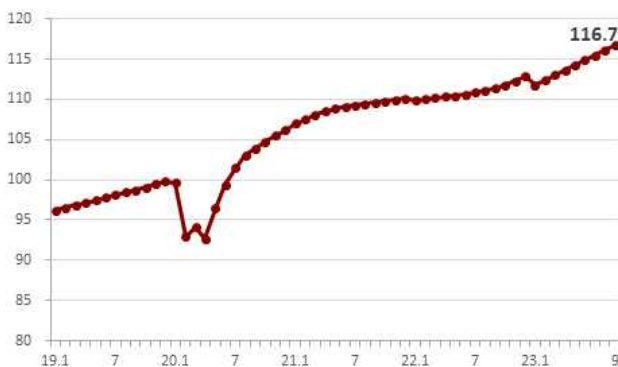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분기 대비 3.2p 상승한 47.8을 기록, 기준선(50)을 하회하고 있으나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세 지속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에 대해 3~6개월 선행성을 나타냄.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48.8('22.3Q)→47.2(4Q)→44.60('23.1Q)→44.63(2Q)→**47.8(3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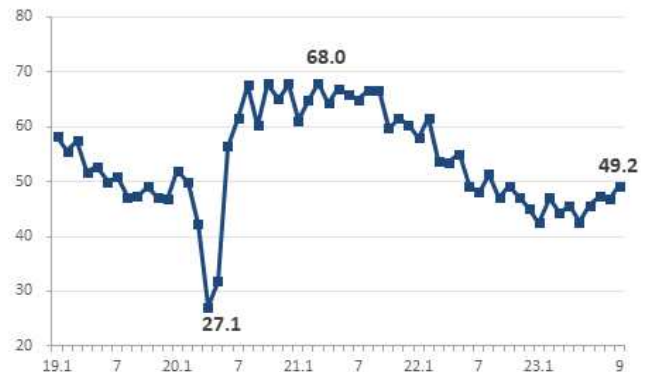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월) : 45.7('23.4)→42.6(5)→45.6(6)→**47.3(7)→46.8(8)→49.2(9)**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주 : OECD 선행지수 활용, 성장률 반영 (2020=100)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자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역대 최고수준이었던 전년 3분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8.0%, 전기 대비로는 6.4% 하락

※ 수출용 수입액지수(분기, 2020=100): 206.0('22.3Q)→174.9(4Q)→175.6('23.1Q)→158.5(2Q)→**148.4(3Q)**

※ 수출용 수입액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 대비): 33.3('22.3Q)→-4.4(4Q)→△3.3('23.1Q)→△20.4(2Q)→△**28.0(3Q)**



- **가격 경쟁력** : 7월 환율 안정 영향으로 3분기 환율은 전 분기(1,315원)보다 **0.3% 하락**한 달러당 **1,311원**이었지만, **8월 이후 환율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은 유지**
- 중동 분쟁 발발 영향으로 2023년말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 분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금리 인하는 2024년 중 시작될 전망이라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338('22.3Q)→1,359(4Q)→1,276('23.1Q)→1,315(2Q)→**1,311(3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320('23.4)→1,328(5)→1,297(6)→**1,286(7)→1,319(8)→1,330(9)**
- **수출물가** : 유가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반도체 단가 하락세도 완화된에 따라 수출물가는 상승할 전망
 -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09.4('22.3Q)→104.0(4Q)→102.8('23.1Q)→99.6(2Q)→**100.6(3Q)**
 - ※ 수출물가 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달러기준) : △0.9('22.3Q)→△6.0(4Q)→△8.7('23.1Q)→△15.0(2Q)→**△8.0(3Q)**
- **D램**은 주요 업체의 감산 효과 영향으로 일부 제품은 4분기부터 가격 반등이 시작되겠으며, 2024년에는 반도체 전제품에 걸쳐 가격 상승이 이어질 전망
 -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평균판매가격, Omdia) : 1.82('23.1Q)→1.55(2Q)→1.47(3Q)→**1.44(4Q)**
- **유가**는 중동 분쟁으로 일시적 급등 가능성은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 동절기 비수기 돌입 등 수요 둔화로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배럴당 80달러 중반대를 유지할 전망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3.4('23.4)→75.0(5)→75.0(6)→**80.5(7)→86.5(8)→93.3(9)→89.7(10.20)**

D램 가격 전망



자료 : Omdia (2023.10월)

유가 추이



자료 : Petronet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가격)

- **주요 산업** : 반도체는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업황이 개선되고, 자동차·일반기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 4분기에는 수출 회복세가 보다 강화될 전망
- **반도체**는 감산으로 인한 D램 가격 상승 및 HBM(고대역폭 메모리),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



리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로 전환될 전망

- **자동차**는 친환경차 및 고부가 차량 비중 확대, 세계 자동차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수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2023년 4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 전망

-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수출물가가 개선됨에 따라 **2023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한 1,650억 달러 내외** 수준 전망
- 수출 감소세가 2022년 4분기(1,591억 달러)부터 시작된 영향으로 **기저효과**까지 반영돼 수출 증가세 전환 가능
 -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1,740('22.3Q)→ **1,591(4Q)**→ 1,513('23.1Q)→ 1,558(2Q)→ 1,570(3Q)
 -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5.8('22.3Q)→ **△10.0(4Q)**→ △12.7('23.1Q)→ △12.0(2Q)→ △9.8(3Q)
- 다만, 중국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중동 분쟁 지속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반도체 시장 개선이 지연될 경우 수출 증가폭은 축소 가능
- **2023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 내외** 전망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재료 가격 상승’(39.8%), ‘원화환율 불안정’(39.8%) 응답 최대

-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35.6%→39.8%), 환율 변동성 확대에 의한 ‘원화환율 불안정’(36.4%→39.8%) 응답이 각각 전기 대비 4.2%p, 3.4%p 상승하며 최대 비중 차지
-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32.4%→32.7%) 응답률은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30.4%→27.1%),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17.6%→12.5%)은 전기 대비 응답률은 감소

‘23년 3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 수 538, 1순위+2순위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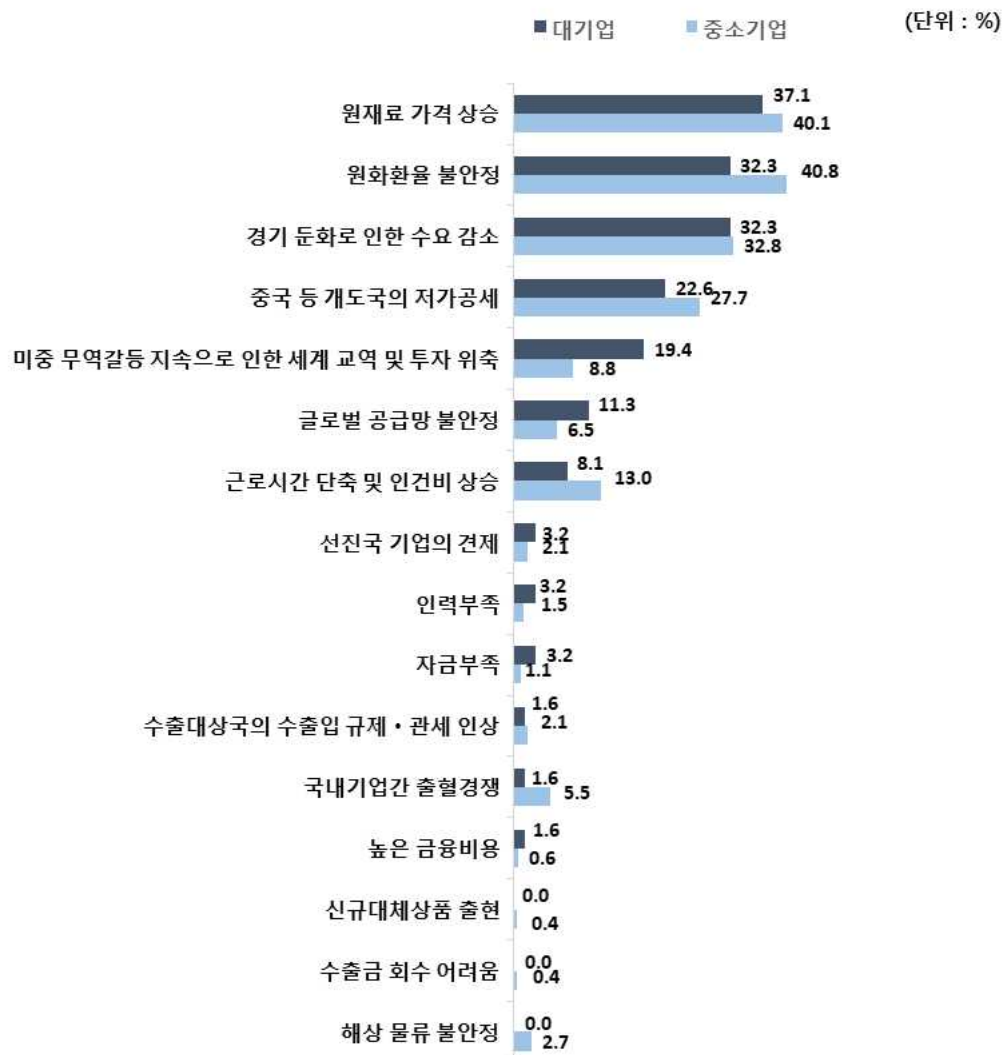
- (산업별) ‘원재료 가격 상승’은 해운(62.5%), 기계류(45.1%), 선박(43.3%) 등에서, ‘원화환율 불안정’은 플랜트/해건(63.6%), 철강/비철금속(48.7%), 자동차(44.9%) 등에서 높게 응답
-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는 해운(62.5%), 문화콘텐츠(60.0%), 섬유류(48.6%)에서,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는 신재생에너지(45.5%), 철강/비철금속(38.2%), 석유화학(33.8%), 선박(30.0%)에서 높게 응답



- (규모별) 대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26.9%→37.1%)'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원화 환율 불안정(35.7%→42.3%)' 응답률이 가장 높음.
- 대기업은 두 번째로 '원화환율 불안정(42.3%→32.3%)' 응답률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36.6%→40.1%)'을 높게 응답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의 경우 중소기업 응답률(31.7%→27.7%)이 전기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으나 대기업 응답률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남.

'23년 3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538,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재료 가격 상승	원화 환율 불안정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	중국 개도 저가 경쟁	등 국 의 세 제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	미중갈등 무역으로 인한 교역위축	글로벌 불안정	국내기업 간 출혈경쟁
전 체		39.8	39.8	32.7	27.1	12.5	10.0	7.1	5.0	
규 모	대 기 업	37.1	32.3	32.3	22.6	8.1	19.4	11.3	1.6	
	중 소 기 업	40.1	40.8	32.8	27.7	13.0	8.8	6.5	5.5	
산 업	전 기 전 자	41.3	43.8	31.3	22.5	10.0	10.0	11.3	5.0	
	기 계 류	45.1	28.3	39.8	28.3	15.0	5.3	3.5	5.3	
	철 강 / 비 철	32.9	48.7	21.1	38.2	10.5	17.1	9.2	2.6	
	석 유 화 학	38.8	38.8	30.0	33.8	11.3	8.8	8.8	1.3	
	자 동 차	38.8	44.9	30.6	21.4	13.3	15.3	5.1	5.1	
	섬 유 류	35.1	24.3	48.6	27.0	8.1	16.2	10.8	0.0	
	플랜트/해건	31.8	63.6	18.2	22.7	18.2	0.0	0.0	13.6	
	신재생에너지	27.3	36.4	9.1	45.5	9.1	0.0	9.1	9.1	
	선 박	43.3	43.3	26.7	30.0	10.0	0.0	3.3	16.7	
	문화콘텐츠	10.0	40.0	60.0	10.0	30.0	10.0	10.0	10.0	
	해 운	62.5	12.5	62.5	6.3	12.5	6.3	0.0	12.5	
수출 지역	북 미	39.4	38.7	31.6	29.0	12.9	11.6	7.1	7.1	
	중 국	34.5	39.1	36.8	28.7	6.9	16.1	8.0	8.0	
	일 본	47.2	47.2	30.2	20.8	15.1	7.5	5.7	0.0	
	유 로 존	46.2	38.5	30.8	25.6	10.3	11.5	3.8	3.8	
	동 남 아	33.9	39.4	33.9	28.4	16.5	5.5	9.2	3.7	
	중 남 미	35.3	35.3	29.4	29.4	11.8	5.9	5.9	11.8	
	중 동	56.3	37.5	37.5	25.0	12.5	6.3	0.0	0.0	

주 : 총 538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3년 10월 4일~11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538개 업체 (대기업 62개, 중소기업 476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	출	업	황
평	가	지	수
수	출	채	산
성	평	가	지
수	출	단	가
평	가	지	수
생	산	원	가
평	가	지	수
수	출	물	량
평	가	지	수
자	금	사	정
평	가	지	수

3.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20년=100 기준으로 산출 (2023년 4월 수정)
- 2023년 1월부터 OECD 경기선행지수가 OECD 국가 전체에서 G7 및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발표됨에 따라 변수 변화에 맞춰 추정 모형도 소폭 수정됨.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가 발표하는 G7 및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등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수출	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실효환율
산업	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수요 기계수주액